

코스피	2612.43 (+6.69)	코스닥	740.48 (+13.07)
금리 (연율)	2.932 (+0.01)	환율 (원/달러)	1384.85 (-3.85)

## 해리스 기존 표적관세 vs 10% 보편관세 트럼프

### 2024 美 대선

#### (中) 주요 공약 비교

##### 해리스 부통령

특정품목 표적 관세 유지 가능성  
비교적 예측 가능 무역환경 예상

##### 트럼프 전 대통령

전면적 관세 부과, 보호무역 강화  
중국산 수입품에 60% 고율 관세  
완성차 등 한국 수출품 부담 우려



ChatGPT로 생성한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이미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기존 민주당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한국 기업들, 두 후보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의 주 내용을 보면 ▲세금 및 규제 완화 ▲보호무역 강화를 들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두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확대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으로 대체될 수 있어 긍정적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범용 관세로 인해 한국산 완성차 수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있으나 이를 우회할 수도 있고, 개정이나 재협상 요구를 할 수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관세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면

적인 관세 부과는 반대했지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전기차, 반도체 등 일부에 '표적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분야, 반도체 등에는 중국산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에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넓은 의미의 '보호무역주의'를 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IRA, 법인세, 방위비분담금 등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철회하거나 일부 조항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환경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 자동차 산업과 경제에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줄이거나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기재위 국감

## “세수 결손 메우려 외평기금 등 투입”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2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세(稅)수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외국 환평형기금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은 뒤 투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으로 결손 세수를 돌려막기한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광현 의원, 김영환 의원 등은 이 같은 반복 및 허위 보고 의혹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최상목 세수 결손대책 지적  
외평기금 활용 않겠다더니  
두 달도 되지 않아 말 바뀐

임 의원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당시 (최 부총리는)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두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 관리에 대한 자체 변경 계획에 작년처럼 외평기금이 있다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외평기금을 자체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주의의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평기금 유동자산 총 규모가 본래 올해 계획이 80조 원이었는데, 수정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 69조4000억 원으로 변경됐다”며 “세수 결손을 대비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럼 9월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 ‘AI 제조 선도사업’ 26개 추진... 민·관 3.7조 투자 기대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  
현대차·삼성중공업 등 대거 참여  
생산 30% ↑, 제조비 20% ↓효과

현대차와 삼성중공업, 에코프로 등 국내 주요 제조기업들이 생산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민관 3조70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26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선도프로젝트에는 현대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등 국내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기업별 선도프로젝트를 보면, 섬유산업 대표 기업인 코오롱은 AI를 통해 설비상태와 품질을 실시간 감지하고 제어하는 한편, 무인 물류 시스템 등을 통해 공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섬유산업은 고령화가 심화된 업종으로 숙련 기술자 은퇴로 인력난과 생산기술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AI를 통해 배관 절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부터 용접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AI 기반의 가변 용접 조건이 탑재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선업의 경우도 선박용 배관 공정은 숙련 용접공 은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공정을 수작업에 의존한다.

세계 1위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는 AI를 활용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공정상 오류를 미리 예방하고 설비를 자동 제어해 최상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최근 전기차 화재로 품질확보가 중요한 업계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올해 초 보잉기 볼트 결합불량 사고로 항공기 분야 품질확보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AI를 이용해 항공기 동체 조립공정에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고 작업지시·품질 검사 등을 모두 자동화하기로 했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대통령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연내 성과 내야” /사진 뉴스1  
▲軍 “북한 무인기 침투시 즉각 대응... 응분의 조치”

▲尹, 우크라이나·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안전 지시  
▲檢 “명태군 의혹” 수사 속도... 미래한 국연구소 대표 소환



▲이재명, 내달 재계 의견 청취... 경총과 정책 간담회 /사진 뉴스1  
▲한미 외교·국방장관, 31일 워싱턴서 회의... 북파병 논의